

## 한일공동선언 · 미래지향적 시대의 창조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오부치 유코입니다. 오늘 고려대학교에서 초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각하,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님, 최관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님, 친애하는 여러 선생님들, 한일 양국정부의 관계자 여러분, 평소부터 한일 양국의 우호친선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의 명문, 고려대학은 세계에 알려진 연구기관으로, 유능한 인재를 다수 배출해 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모교이자, 저 또한 배우고 학위를 취득한 와세다대학교는 긴밀한 학술교류를 추진하여, 교수와 유학생 교환, 연구실적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9년전인 1999년 3월 20일, 고려대학교에서 제 아버지인 오부치 게이조가 <신세기의 한일관계-새로운 역사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수상으로서 강연했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김대중 각하와 제 아버지는 1998년 10월 8일에 한일공동선언에 서명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일양국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우호협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의 한일양국 관계의 발자취는, 우정과 상호이해의 심화에 머물지 않고,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국제공헌의 파트너로서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일 공동선언 10주년 심포지엄이 이와같이 개최된다는 것이, 당시 양국의 두 지도자가 흥금을 터놓고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에 입각하여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절충한 일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검증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선친은 학생시절부터 장차 정치가가 되겠다는 뜻을 세워, 공부하고 활동해왔습니다. 아버지는 대학졸업후, 26세에 국회에 진출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의 세계의 격동기로, 이데올로기의 대립, 미소 양진영의 냉전, 베트남 전쟁, 쿠바 위기, 아프리카 여러나라의 독립 등, 실로 정치가 뜨거웠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는 학창시절부터 아시아 유학생 친구가 많아서 각국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언젠가 조국으로 돌아가 자기 나라의 번영을 위해 진력하고자 하는 애국심을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여, 건국초기의 나라의 많은 국민이 수많은 장애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에 진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국가번영의 기초는 사람에게 있으며, 인재 육성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굳건한 신념을 얻게된 것입니다. 이 신념은 아버지의 정치신조이고, 이후 외무상 그리고 수상으로서 이 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즉 진정한 교양인은 애국심을 지니면서 동시에 이기(利己)에 빠지는 일없이 어디까지나 이타(利他)를 우선하여 전체 복지를 위해 솔선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집합체인 국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덕을 높이고 존경받는 국가야말로 성숙된 일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국유덕(富國有德)’한 나라만들기라고 이름붙인, 이 비전을 실현하고자 아시아외교, 내정에서는 특히 교육개혁에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나라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강요한 고난의 시대입니다. 일본이 스스로를 돌아

보는 데 있어서도 한일관계 역사를 직시하는 자세는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을 토대로 부(負)의 유산을 청산하고, 양국 국민이 화해하고,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생각을 김대중 각하가 받아들여주셔서, 20세기에 있었던 일은 20세기 중에 청산하고, 함께 새로운 21세기를 새로운 결의로 맞이해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역사창조의 시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늘 미래지향적이었던 아버지는 확고한 의사를 지닌 건설적인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지나친 비관주의는 활력을 빼앗아간다고 경계하셨습니다. 1999년, 2000년 2번에 걸친 정기국회개회시의 시정방침연설에서도 ‘21세기 5개의 가교’, 그리고 ‘다섯가지 도전’이라는 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적합한 국가로 일본이 성장해나갈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2000년은 새로운 ‘1000년’(밀레니엄)으로 새로운 일본의 국가상 및 평화롭고 번영을 구가하는 국제사회 형성을 꿈꾸셨습니다. 아버지의 키워드가 미래라면, 원대한 미래가 밀레니엄이고, 가까운 미래가 2001년부터 시작된 21세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병으로 쓰러져 21세기의 시작을 볼 수 없었습니다만, 직접 정성껏 뿌린 씨앗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처럼 26세에 국회에 진출한지 8년남짓 지났습니다. 저는 확실히 21세기와 함께 걷고있는 국회의원이고, 새 시대의 한일관계의 심화·성숙이라는 획기적인 역사 변동에 지금까지 여러차례 자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을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의 해협을 건넌 월드컵 아시아지역 초유의 한일양국 공동개최.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각하의 영단에 의해 추진된 일본 문화개방 방침이 양국의 거리를 일반국민의 레벨까지 한층 더 가깝게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방송국근무 경험이 있고, 또 문교행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 분야에는 특히 유의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이후 일본에서는 오래도록 ‘한류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남자주인공, 여자주인공이나 팝뮤지션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고,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는 매우 인기가 있으며, 많은

운동선수나 예능인이 해협을 건너 서로 활약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기쁘기 그 지없는 일입니다. 2000년 12월 저도 한일의원연맹 방한단의 일원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청와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동요의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음악이 공적인 자리에서 연주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던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이미 봄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일 양국의 문화는 한강의 물과 도네가와(利根川)의 물이 하나로 융합되듯이 단단하게 양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여, 일본에 전하고 각자가 자국의 문화로 만들어간 오랜 역사의 흐름과도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선언에 의해 청년층의 교류촉진을 꾀한 워킹홀리데이의 제도화나 유학생 교류프로그램도 시도되었습니다. 1998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한 학생은 11,467명, 2007년에는 17,2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유학생은 613명이었지만, 2007년에는 1,106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0년의 한일국교수립 당시 양국의 인적 왕래는 양국을 합쳐 22,28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2007년에는 4,836,657명으로 증가하고, 2001년 3,511,292명과 비교해도 약 130만명이나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공동선언이 커다란 성과를 얻고 있는 사실은, 기타 무역액의 증가를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한일양국 각료의 정기적 회의를 비롯하여, 1999년 11월에 처음으로 열린 일본·한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시도 등, 정부레벨에서의 긴밀한 접촉이 모색되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실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관계만들기는 착실히 성공의 과실을 맺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 아버지가 외무대신에 취임할 당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통화 금융 위기대응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과감히 이 난국에 맞서 훌륭히 극복하고, 이전의 발전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김대중 각하도 그 중 한분이셨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미국 서브프라임론 문제에서 발단한 주가 하락, 원유가 상승, 식품가 상승 등, 일국의 정치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현재도 세계공통의 큰 정치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양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치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예지를 모으고 이들

글로벌한 과제에 몰두해가는 것이 지금,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보더라도 가깝기 때문에 근린과의 문제를 안고있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한일양국도 20세기의 불행한 역사를 배제한다고 해도, 역시 서로의 주장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적잖이 안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공동선언 이후 그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일양국의 친선에 힘쓰는 젊은 정치가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같이 이러한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고 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갖고 대화를 추진한다면 저절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998년부터 오늘날까지 한일양국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1998년 이전과 이후는 역시 양국간의 시대가 상이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연대에 의해 많은 과제에서, 보다 유효한 해결책이 얻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동아시아의 안전보장,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한국 그리고 관계국과의 연대가 해결의 실마리이며, 우리에게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더욱이 양국의 기술력에 의한 각 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일본에서는 외무성 소관의 청년해외협력단 대원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현지생활에 녹아들면서 기술협력을 통해 민생향상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형식을 참고로 하여 한일 양국의 연대에 의해 개발도상국 지원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닌 맨 파워에 의한, 빈곤, 질병, 기아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 체제의 확립이며,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의 잠재능력과 리더십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이 성황리에 폐막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88서울올림픽이 화려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평화의 제전’의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정확히 스무살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20세에 성인이 됩니다. 서울 올림픽의 해에 탄생한 젊은 세대가

서로의 나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세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1964년의 도쿄 올림픽세대, 이어서 1988년의 서울올림픽세대, 그리고 2008년의 베이징올림픽 해에 태어난 세대가 각각 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21세기 아시아와 세계를 이끌어갈 제1인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경애해마지않는 작가인 시바 료타로 선생님의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대들에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노년을 맞은 시바씨가 21세기라는 미지의 시대를 눈부신 시대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지금은 아직 어린 다음 시대의 주인공에게 의탁한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김대중 각하에게 받아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휘호에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웃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왕도를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 번영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가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해석하였습니다. 저도 이것을 희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국의 지도자의 결단이 양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보면, 8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커다란 결실을 맺은 것을,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양국의 젊은이가 서로 서로,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와도 함께 손잡고, 꿈과 희망에 찬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으면 하고 마음속부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日韓共同宣言、未来志向の時代の創造

小淵優子

皆様こんにちは。ただ今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小淵優子でございます。本日、ここ高麗大学にお招き頂き、まことに有難うございます。

尊敬する金大中元大統領閣下、李基秀高麗大学総長、崔官高麗大学校日本研究センター所長、親愛なる諸先生方、日韓両国政府の関係者の皆様、日頃より日韓両国の友好親善にご尽力いただいている皆様、大韓民国を代表する私学の雄、高麗大学は世界に知られる研究機関であり、有能な人材を数多く輩出してこられました。私の父の母校であり、また私も学び、学位を取得した早稲田大学とは、緊密な学術交流を進め、教授や留学生の交換や研究実績に大きな成果をおさめられているとお聞きし、心より敬意を表する次第であります。

また、9年前の1999年3月20日、本学において父小淵恵三が「新世紀の日韓関係―新たな歴史の創造―」と題し、日本国の首相として講演を行いました。

本日、ご臨席の金大中閣下と父小淵恵三は1998年10月8日、日韓共同宣言に署名し、21世紀に向けた新しい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し、日韓両国が更に高い次元での友好協力を発展し、新たな歴史を創造していく事を確認したのであります。

そこから本日までの日韓両国関係の歩みは、友情と相互理解の深まりに留まらず、互いの国ばかりではなく国際社会においても共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国際貢献のパートナーとしても、その絆を深めている事は、皆様ご承知の通りでございます。

日韓共同宣言の10周年のシンポジウムがこの様に開催されている事が、両国

の当時の二人の指導者が胸襟を開き、小異を捨て、大同に立ち、次の世代、次の時代を見据え、未来志向で歩み寄った事が正しかった事の証しである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

その偉大な事業を検証する当シンポジウムにおいて、私にこのような機会を与えて頂いたご関係の皆様へ改めて感謝を申し上げる次第であります。

小淵恵三は学生時代より将来政治家になるという志を立て、学び活動して参りました。父が大学で学び、26歳で国会に議席を得たのは1950年代後半から1960年代の世界中が激動していた最中であり、イデオロギーの対立、米ソ両陣営の冷戦、ベトナム戦争、キューバ危機、アフリカ諸国の独立等、正に政治が熱い時代でありました。

父は学生時代より、多くのアジアからの留学生の友人を持ち、それぞれの国の実状を聞き、また彼らがいずれ祖国へ戻り国の繁栄の為に尽力したいとの愛国心に触れ、深い感銘を受けました。また若い頃より、数多くアジアの国々を訪問し、建国間もない国々で多くの国民が様々な障害にもめげず困難に真摯に立ち向かっていく姿を目撃し、国家の繁栄の礎は人にあり、人材を育成するには教育が最も重要であるとの揺るぎない信念を得たのであります。この信念は父の政治信条であり、後、外相そして首相としてこの理念を具体化すべく活動いたしました。

すなわち真の教養人は、愛国心を持ちながら利己に陥る事なくあくまで利他を第一として、全体の福祉の為に率先して行動するものであり、また人の集合体である国家においても同様であり、自らの徳を高め尊敬される様な国家こそが成熟した一流国といえるのであります。父は「富国有徳」の国造りと名付け、このビジョンの実現に向け、アジア外交、内政では特に教育改革に並々ならぬ意欲で取り組んで参りました。

日本が貴国(韓国)を始めとするアジアの国々との関係に言及する時、避ける事



が出来ないのが近代化のはざまに我が国が強いた苦難の時代であります。

日本が自らを省みる上でも、日韓関係の歴史を直視する姿勢は不可欠であります。

こうした歴史認識に立ちながら負の遺産を清算し、両国の国民が和解し、未来を築き上げていくべきとの父の思いを金大中閣下が受け止めて下さり、20世紀に起こった事は20世紀のうちに清算し、共に新しい21世紀を新しい決意で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新たな歴史の創造の試みがスタートしたのであります。

常に未来志向であった父は、確固たる意思を持った建設的楽観主義者でありました。行き過ぎた悲観主義は活力を奪い去ると戒めておりました。

1999年、2000年の2度にわたる通常国会冒頭の施政方針演説においても、「21世紀の5つの架け橋」、そして更に「5つの挑戦」として新しい時代の幕開けにふさわしい国家として日本が成長していく事を訴えかけました。

特に2000年は、新たな「1000年紀」(ミレニアム)であり、新しい日本の国家像並びに平和で繁栄を謳歌する国際社会の形成に思いを馳せておりました。

父のキーワードが未来であるならば、遠大な未来が千年紀(ミレニアム)であり、近い未来が2001年から始まった21世紀であります。

残念ながら、病に倒れ21世紀の幕開けを見る事は叶いませんでしたが、自ら丹精込めて蒔いた種がこうやって実を結んでいる事を喜んでいる事と思います。

私が父の後を継ぎ父と同じく26歳で国会に議席を得て8年余が経過いたしました。私はまさしく21世紀と共に歩んでいる国会議員であり、新時代の日韓両国関係の深化・成熟という画期的な歴史の変動に数多く臨む機会を今日まで与え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象徴的な出来事を幾つか挙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2002年の海峽を越えてのサッカーのワールドカップのアジア地域で初めてとなる日韓両国による共催。そして、何よりも金大中大統領閣下のご英断によって進められた対日文化開放の方

針が両国の距離を一般国民レベルまで一段と近づけた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私自身テレビ局勤務の経験もあり、また文教行政を中心に活動している為、教育・文化の分野には特に留意をしておりますが、ワールドカップ以降、日本では永く「韓流ブーム」が続いております。韓国のドラマのヒーロー、ヒロインやポップミュージシャンが憧れの的となり、街の話題の中心となっています。韓国語を学ぶ人が増え、大学において韓国語の講座は大変な人気であり又、多くのスポーツ選手、芸能人が海峽を越え、互いに活躍している事は多いに慶ばしい限りであります。2000年の12月、私も日韓議連訪韓団の一員として、金大中大統領に青瓦台へご招待いただきました。その宴において、日本の童謡の調べが流れました。日本の音楽が公の席で奏でられたのはこれが初めてと知り、何と多くの歳月を待たねばならなかったのかと感慨を深くいたしました。既にブームという言葉では表し得ない程、日韓両国の文化は漢河の水と利根川の水が一つに融合したかの様にしっかりと両国に浸透しております。

それは、韓国が中国より仏教と儒教を受け入れ、更に日本に伝え、各々が自国の文化へと形造っていた古い歴史の流れにも通じるものが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共同宣言によって又、若者の交流促進を図ったワーキングホリデーの制度化や留学生の交流プログラムも図られました。1998年に韓国から日本への留学生は11,467名、2007年には17,274名に増加。

2000年に日本から韓国への留学生は613名だったのが2007年には1,106名に増加しております。1960年の日韓国交樹立時の日韓両国の人の往来は両国あわせてたったの22,280名でした。それが2007年には4,836,657名にも増加し2001年の3,511,292名と比較しても約130万名も急増している事を見ても、共同宣言が大きな成果を得ている事は、ほかに貿易額の増加をみても疑う余地がありません。

政治の分野においても日韓両国間の閣僚の定期的会合を始め又、1999年11月に初めて行われた日本・韓国・中国の3ヶ国の首脳会議の試み等、政府レベルの緊密な接触が計られ、歴史的にも地理的にも一衣帯水の真に「近くて近い国」の関係づくりは、着々と成功の果実を実らせております。

10数年前、父が外務大臣に就任した当時、アジアの多くの国々が通貨金融危機の対応に苦慮しておりました。当時の指導者は敢然とこの難局に立ち向かい

見事に克服し、以前の発展のスピードを取り戻しました。金大中閣下もその一人でした。要因は異なりますが、米国のサブプライムローン問題に端を発した株価の下落、原油高、食料の高騰等、一国の政治力では対処し切れない問題が現在もまた世界共通の大きな政治課題となっています。

日韓両国を始め各国の政治家、国民が一団結して叡智を結集してこれらグローバルな課題に取り組んでいく事が今、まさに望まれていると思います。

世界の多くの国々をみても近いがゆえに近隣との問題を抱えているといったケースが少なくありません。日韓両国においても、20世紀の不幸な歴史を除いたとしても、やはり互いの主張を譲れない問題を少なからず抱えております。残念ながら、共同宣言の後、それらの問題がすべて解消さ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私は日韓両国の親善に努める若い政治家の一人として父同様にこういった課題に対し、建設的楽観主義をもって臨み続けたいと思っています。

時間をかけて対話を進めていけば、自ずと解決への道は拓けると私は確信いたしております。その証左が1998年から今日迄の日韓両国の歩みであります。1998年以前と以降ではやはり二国間の時代が異なっている事は明白な事実と思っております。

今後の日韓の緊密な連携によって多くの課題において、より有効な解決が得られると考えます。一つには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北朝鮮の問題があります。この問題においてこそ韓国そして関係国との連携は、解決への糸口であり私共にとって、アジアの平和と繁栄の為に避けて通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

更に両国の技術力によっての各分野の新たな研究開発はもとより、途上国への支援も求め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我が国では外務省所管の青年海外協力隊の隊員が東南アジア、アフリカ始め途上国に派遣され、現地の生活に溶け込みながら、技術協力を通じ民生向上に大きな成果を挙げています。この形式を参考にして日韓両国の連携により途上国支援の強化が一層図られる事を期待もしております。

武力でなくマンパワーによる、貧困、疾病、飢餓への対応こそが、人間の安全保障(ヒューマンセキュリティ)体制の確立であり、国際社会においても日韓両

国の潜在能力とリーダーシップによって実現され得ると確信しております。

先月、アジアで3ヶ国目の開催となる北京オリンピックが盛況の内、閉幕いたしました。

今から20年前は2008年にパルパル・ソウルオリンピックが華々しく開催されました。「平和の祭典」の年に誕生した子供達が今年20歳となります。

日本では20歳で成人となります。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年に誕生した若い世代が、互いの国、アジアそして世界を動かしていく時代に進んでいます。先ず1964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世代、続いて1988年のソウルオリンピック世代そして2008年の北京オリンピックの年に誕生した世代が各々の世代のバトンをリレーしながら21世紀のアジアと世界を引っ張っていく第一人者とやがて成長していくのです。

父と私が共に敬愛してやまない作家の司馬遼太郎先生に「21世紀に生きる君たちへ」という作品があります。

20世紀に老境を向かえた司馬氏が21世紀という未知の時代を輝かしい時代と造り上げて欲しいといまは幼い次の時代の主人公に託したメッセージです。

父が金大中閣下に頂き、座右の銘としていた揮毫は「敬天愛人」と認められています。互いに隣人として愛し合い、天を敬って21世紀に向けた歴史の王道を手を携えて進み、世界の民主主義を繁栄のために両国が協力していくことであると父は解釈しておりました。私もこれを希求すべき理想と考えます。

皆様、両国の指導者の決断が両国の悠久の歴史の中で、8年と日の浅い中でも大きな実りとなったことを、私も改めて喜びとしています。これからも日韓両国の若者が互いに、そして世界の若者とも手を携え、夢と希望に満ちた新しい歴史を創造して欲しいと心から祈り、私のスピーチを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